

3. 예수님으로부터의 초대...

오거라, 행복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을 이끌거야.

2016.03.16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아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 너희들은 적들의 공포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 나에게 너희들의 삶을 줄 때,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돌볼 거야. 만약 너희들이 나에게 그 시간을 준다면 나는 매일 너희들을 만나고 인도해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의 모든 길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부름과 선물의 놀랍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끝없는 성취와 기쁨이 있는 계획들을. 적들이 너희들을 절망과 폭력적인 생활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는 계획들을.

이 생활방식은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무의미하고 영원한 보상이 없는 삶이야. 이 생활방식은 더 많은 폭력, 질병, 비통함 그리고 죽음을 가져와. 이것은 진짜 사랑에 대한 너희들의 욕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

그래,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해. 그래, 나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두웠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매일 새로운 날이 기회들로 가득차 있고, 매달 성장으로 가득차고, 매년 더 크고 큰 행복을 낳는, 나와 함께 사는 내 안에 있는 집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모든 삶의 악한 길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줘야해. 나는 너희들의 손을 잡고 승리로 이끌거야. 너희들은 전에 항상 굴복당했던 것들에 승리하게 될 거야. 날마다 과거에 실망하고, 갇혀있고, 억압당하고, 어둠만이 존재했던 곳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래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구해주기 위해 왔어. 나는 너희들의 삶의 그 속박과 멍에를 깨기 위해 왔어. 셀 수 없이 고통받는 너희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주러 왔어. 나는 멸시와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 나는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 나는 너희들이 좋은 의미로 다가간 사람들에게 얼굴을 걷어 차이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 나는 이 모든 극심했던 삶을 살았고 사랑으로 모두 정복 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권한을 주고 정복할 수 있게 힘을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의 과거의 비통함과 비난을 없애주고 달려가 너희들에게 옷을 걸쳐주고 너희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빼앗긴 바로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왔어. 그래, 나는 너희들이 결코 될 수 있다고 알지 못했던

너희들로 회복시킬 거야. 그래, 나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래,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의 사랑스러운 품으로 돌아와서 “네, 주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 영혼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제가 이끌어 왔던 악한 삶을 용서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저희에게 했던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엉망진창인 저의 삶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거라.

나의 자녀들아, 마음속에서부터 이 말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안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미래로 데려갈 거야. 그래, 이 약속을 너희에게 할게: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주면 나의 희망을 너희들에게 줄게. 눈을 멀게한 비늘, 여전히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비통함의 칼을 나는 제거할 거야.

이 상처들을 모두 치유하고 너희들의 적들 보다 높은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할 거야. 너희들은 과거의 악마들을 정복하고 극복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공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거야.

나에게 와서 나의 손을 잡아라. 오거라, 너희들은 이제 나의 것이야. 우리 함께 이 과거의 감옥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빛의 새로운 날로 가자. 오거라.